독자마당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지적사항·제안 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HBS3470

어린이들 기다리는 '동쪽나라' 살려야

6월 12일자 12면에서 '월간 〈동쪽나라〉 5월호로 휴간'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동쪽나라〉가 발행 7년만에 잠정 휴간을 결정했다고 한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휴간이유가 몇년에 걸쳐 누적된 적자폭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본인은 월간〈동쪽나라〉가 불교계의 유일한 어린이 전문잡지란 점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 〈동쪽나라〉가 휴간을 하게 된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 첫째가 보살불교 즉 성인불교만을 추구하는 스님네들의 의식이다. 이로인해 부모님과 함께 절에오는 어린이들에게는 관심없고 오직 어른들과 함께해야만 사찰에서 원하는 불사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다는 조급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의식들을 보다 더 일찍 무너뜨렸다면 지금과 같은 월간 〈동쪽나라〉휴간이란 기사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불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쯤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일은 없었지 않겠는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동쪽나라〉가 배달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조계종단이나 누군가 역량있고 의욕있는 불자가 인수하는 복간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엄정임·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삼풍참사 1년 교훈 안전의식 생명처럼

세간에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던 삼풍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사를 당한 이들의 가족들 역시 그 시간의 길이만큼 긴 고통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있을 테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아픔과 눈물이 고여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린 늘 아픔도, 기쁨도 너무 빨리 잊는 사람들로 변해왔다. 무엇이든 그때뿐인 것이다.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그때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상태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늘 이렇게 자조섞인 푸념에 그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삼풍참사로 인해 희생된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주위를 둘러보고 또다른 사고의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생을 다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일 것이다.

〈김성경·서울 금천구 독산2동〉

법당 바로앞에 주차 사찰서 적극 통제를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모 사찰을 참배했다. 오랫만에 가족들과 함께 산사를 찾은지라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사찰입구에 도착해 합장을 하고 대웅전을 향했다. 그러나 사찰까지 가는 동안 여러번 고행아닌 고행을 감수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버젓히 주차장이 있는 데도 법당앞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느낀점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성스러운 부처님이 모셔진 사찰,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뒷꿈치를 들면서 조용조용 걷는데 불자라고 자칭하는 이들 대부분은 아무 거리낌없이 보란듯이 법당앞까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대부분 고급승용차란 점에 더욱 놀랐다.

특히 이들에 대한 사찰측의 대우를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이 법당앞까지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은 사찰측이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란 판단밖에 내릴 수 없었다. 분명 부처님께서는 빈부의 구별이 없고 누구나 평등하다고 설하셨는데 법당앞에 고급승용차 주차를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함영남·서울 용산구 남영동〉

현대불교를 읽고

데생용 반가상 받고 학생들 민족얼 상기

불교종립학교인 미술실에 데생용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이 마침내 6월17일 상단에 봉안되었다.

우리 학교 개교이래로 미술실에 데생 실기용으로 보살상을 모시는 불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어찌 생각하면, 이제까지의 타성들이 부끄럽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이참·사참으로 참회하는 순간도 가졌다.

이같이 거룩한 일을 매주 문서포교의 으뜸원리를 자랑하는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그 신력·법력·묘력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바라고 싶다. 그리고 크나큰 믿음을 보낸다.

어릴때 소꿉놀이하면서 모래성을 쌓는 일도, 미래를 향해 하나의 성취동기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균여의 보현십원가 중의 예경제불가의 "마음의 붓으로/그려 놓은 부처님 앞에/절하는 이 몸이여/법계 끝까지 이르소서/티끌마다 부처님 절이며/절마다 모셔 놓은 법계에 가득하신 부처님/구세가 다하도록 절하리라"라는 노랫말이 생각난다.

날이 갈수록 몸은 한국인이로되, 의식구조는 서양인화에 대한 우려도 많아져 가는 세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래고주 미륵보살을 떠올리면서, 붓을 잡고 청정한 신어의업으로써 구상화시켜 간다면, 처처가 신선한 생명감이 넘치는 도량이 될 것이다.

〈경철·광주광역시 정광고 교감〉

독자사진

이런 차림으로야… 큰스님께 들은 이야기다. 어깨를 드러내고 노출이 심한 차림의 참배객은 절에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목욕재계는 못할 지언정 법당참배의 기본 예의는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름 참배복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양평 용문사를 참배하며. 〈조경숙·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여름 수련대회를 앞두고

대자연속 참선일정 청소년 선도에 큰몫

입시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수련대회(캠프)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요즘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안스럽기 그지없다. 새벽같이 학교로 출발하여 10시간 이상의 수업과 자유롭지 못한 야간 자율학습에 아이들은 지쳐가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바람으로 마지막 남은 아이들의 시간마저 까다로운 영어와 컴퓨터에 투자되고 있다. 이런 빠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막연한 소외감 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사고하는 환경속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런 자유로운 삶 속에서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민이 탄생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련활동(캠프)을 꼽을 수 있겠다.

대자연 속에서 맘껏 소리도 질러 보고 뛰어 다니며 다른 방식의 또래 집단도 만나고 그 속에서 두터운 우정과 협동심도 키워 나가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부이자 참 깨달음의 길이 아닌가 싶다.

올해는 불교 청소년의 해이기 때문인지 예년보다 더 많은 불교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이 잡혀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수련회를 비롯해서 국악캠프, 문화캠프, 과학캠프 등 다양한 캠프도 있다 하니 꼭 참가해 보길 바란다. 좀 더 큰 사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성구·(사)청소년교화연합회 간사〉

보고만 있을수 없어요

조선말까지 불교성지 천진암에 대성당 착공

세계 10대 성당을 목표로 건립중이라는 천진암 대성당 착공식 보도를 접하고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껴야 했다.

천진암은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까지 존재했던 대중스님이 3백여명에 이르렀던 거찰로 천주교도와 충신들의 은거처를 제공했던 사찰이었다고 한다.

특히 천주교도들이 천진암에서 집회를 가졌고 이승훈을 북경에 보내서 천주교를 이땅에 전파하는데 대중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수많은 도움을 주었던 곳이 천진암이었다. 문헌에 의하면 천주교도들을 은거해주다 수많은 스님들이 처참히 죽고 폐사의 아픔까지 겪었다고 한다.

이런 사찰이 소위 천주교 성역화라는 미명아래 불교적 양심으로 베풀어준 은덕을 배은망덕으로 갚은 천주교로 인해 법당터는 천주교 성인 5인의 묘지가 됐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역화작업의 눈에 티라며 앵자산 중턱의 영통사와 회령사도 신부의 모략과 '절내놓으라'는 천주교도들의 농성 등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물리력으로 비구니스님을 협박하여 폐사시켜 버렸다.

지금와서 무슨말을 한들 소용없다는 것도 안다. 외유내강인 불교종단 특성상 당연했던 결과였으리라는 생각도 해본다. 남이 가져가려는 우리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것을 갖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인력과 재력의 낭비가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불교가 달라졌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화합불교 주체성있는 불교가 선결과제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 혁·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향 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모범업소(오랜전통)
동궁 결혼 연구원
초혼·재혼
저희 업소는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소장 金銀子 합장
문의전화:745-3005

포교당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50평,시설 일체 완비
■연락처:(02)245-0904
■비용:보증금 3000만원 시설 일체 1800만원
※운영 즉시 법호 가능합니다.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사찰 양도 안내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법당 : 요사체 시설 일체 완비
●특징 : 천불전, 천수천안관세음보살, 9층탑, 16나한님, 종각, 미륵 부처님, 해수관음상. 모셔짐 정원수려
●금액 : 8억(절충가능함)
※연락처:064)32-1495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 판매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척추교정·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처료및교육내용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불교사업 동참하실 분
■불교 교육사업에 뜻이 있는 분
■불교지도자 양성사업 하실 분
■불교 단체 운영하실 분
※교육청 인가
만대교학대학원
등기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931-6075~6(代)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합천(해인사):대적광전·법상·경상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옹각 복전함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성남(범룡사):대웅전 문짝 닫집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마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옹각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서울(학림사):화관 불사, 그외 다수 시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택 02-248-4609
공장 0346-571-9538
호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강원도 산사에서 수양하실분을 찾습니다.
■경치좋고 시설 편리한 사찰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찰일을 도우며 사실 건강한 분이나 노후를 보낼 부부도 환영합니다.
※농사도 지을수 있고 학생이나 고시공부 하는 분도 받습니다.
■문의전화:진곡사(0346-592-7315) / 강원도:(0346)461-7294

佛事 (불사)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신비의 불탑다라니" 책자를 스님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현재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세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파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및관념파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 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도록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주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아간 (0342) 706-3060